

# I. 개관 11주년 기념행사 진행표

시간	일 정
13:00~13:30	등록 및 접수
13:30~13:50	<b>개관 11주년 기념식</b> <span style="float: right;">진행 : 홍성덕(전주대학교)</span> 개회사 _ 이동희(전주역사박물관장) 환영사 _ 이태영(전주학추진위원장) 축 사 _ 송하진(전주시장) 이명연(전주시의장)
13:50~14:20	<전주 시장 사진특별전> “조선의 3대 시장, 전주장全州場” 관람
14:30~15:00	<b>제15회 전주학 학술대회 “전주의 시장과 경제”</b> <span style="float: right;">진행 : 김주성(전주교육대학교)</span> <주제발표 1> 조선시대 전주의 시장과 유통망_ 김대길(국사편찬위원회)
15:00~15:30	<주제발표 2> 일제강점기 전주의 시장과 상권 _ 양미경(한국학중앙연구원)
15:30~15:40	휴식
15:40~16:10	<주제발표 3> 광복 후 전주의 시장과 상인 _ 구혜경(전북대학교)
16:10~16:40	<주제발표 4> 근대 전주의 경제구조와 그 변화 _ 소순열(전북대학교)
16:40~17:00	휴식 및 장내정돈
17:00~18:00	종합토론 좌장 : 이동희(전주역사박물관) 토론 : 원용찬(전북대학교), 홍성덕(전주대학교), 함한희(전북대학교), 김민영(군산대학교)
18:20~	만찬

## Ⅱ. 보도의뢰 내용

### <전주역사박물관 개관 11주년 특별전 및 학술대회>

## 전주 시장 사진특별전 및 전주의 시장과 경제 학술대회

지난 2002년 동학(東學) 중심의 박물관으로 출발해 지금은 '전주학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한 전주역사박물관(관장 이동희)이 오는 6월 11일(화) 개관 11주년 기념 전주 시장 사진 특별전과 열다섯 번째 전주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역사박물관이 개관 11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해 보는 자리로 마련한 이번 행사는 ①<개관 11주년 기념식>에 이어 ②<전주 시장 사진 특별전> “조선의 3대 시장 전주장全州場” 개막식, ③<제15회 전주학 학술대회> “전주의 시장과 경제” 순으로 진행된다.

### 1) <전주 시장 사진특별전> 조선의 3대 시장, 전주장全州場

이번 전시는 전주역사박물관 개관 11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제15회 전주학 학술대회 ‘전주의 시장과 경제’ 학술대회와 더불어 진행되는 것으로, 조선 말부터 근현대까지의 옛 시장사진과 상가의 모습을 한데 모은 전시이다.

조선시대 전주는 평양, 대구와 함께 조선의 3대 시장으로 꼽힐만큼 물산의 집결지이자 유통의 중심지였다. 4대문밖에 모두 시장이 들어서 남문밖장, 서문밖장, 동문밖장, 북문밖장 등 4개의 시장이 있었고, 전주 외곽 주변에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봉동장, 삼례장 등 대략 7개 정도의 장시가 있었다.

일제시대에 4대문의 장시는 남문시장으로 통합되어 조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업공간이 되었다. 전주소심은 대정통(大正通), 즉 전주우체국에서 다가동파출소에 이르는 거리를 중심으로 상가가 형성되어 일본인들의 상업공간이 되었다. 1923년에는 전주 약령시가 다가동파출소 앞에 복설되어 1943년까지 이어지면서 대구약령시와 쌍벽을 이루었다.

이번 전시는 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0여점의 사진이 전시된다. 1부는 조선말~일제시대의 시장모습으로, 1900~1940년대의 남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주시장과 상점 사진 등의 사진 20여점을 전시한다. 2부는 광복이후~현대의 시장모습으로, 1950~1980년대의 남부시장 근대화사업 전후사진, 천변의 노점상 사진, 서부시장·동부시장 사진, 상점사진 등 40여점이 전시된다.

이번 전주시장사진 특별전은 조선말에서 현재에 이르는 전주시장의 모습과 그 변천을 사진으로 담아낸 것으로, 이를 통해 과거에 대한 회상과 전 세대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란다.

## 2) <제15회 전주학 학술대회> 전주의 시장과 경제

열다섯번째 전주학학술대회로 전시와 연계하여 전주의 시장과 경제를 규명하는 학술대회이다. 그 간 전주학이 역사문화에 치중하였던 것에 반해 전주의 시장경제를 통해 지역정체성을 찾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발표는 4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시대별로 나누어 김대길(국사편찬위원회사료조사실장)이 “조선시대 전주의 시장과 유통망”에 대해 발표한다. 김실장은 이 논고에서 조선 성종 원년(1470) 장시가 전라도 무안과 나주 등에서 처음 개설되었으며, 이 때 전라감영의 소재지로 물산의 집결지인 전주에도 장시가 열렸을 것이라고 하였다.

양미경(한국학중앙연구원박사)은 “일제강점기 전주의 시장과 상권”을 주제로, 일제강점기 도로망과 철도가 등장하면서 유통구조를 객주 위주에서 개항장 위주로 변화시켰으며, 전주역 주변에 정미소가 많은 것은 미곡을 철로를 이용해 군산항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구혜경(전북대강사)은 “광복 후 전주의 시장과 상인”이라는 주제로, 남문시장의 변천사에 대해 구술사 자료를 병행하여 정리하고, 쇠퇴해 가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본래 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오락과 유희를 살려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소순열(전북대교수)은 마무리 발제자로 나서서 “근대 전주의 경제구조와 그 변화”를 논한다. 이 논고에서 소교수는 일제강점기 전주가 대도시였으나 경제면에서 중심적 위치에 서지 못하고 지방의 소비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쌀을 중심으로 한 지주 소작관계에서 등 채소 등의 상품경제화된 근교농업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주제발표에 따른 토론자로는 원용찬(전북대교수), 홍성덕(전주대교수), 함한희(전북대교수), 김민영(군산대교수)가 나선다. 6월 11일(화) 13시 30분 개관식에 이어 진행되는 전주학학술대회 좌장은 이동희(전주역사박물관 관장)이 맡는다.

\*\* 6. 11(화)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이번 전시 담당자는 김정은 학예연구사, 학술대회 담당자는 이지은 학예연구사입니다.

### Ⅲ. <개관 11주년 기념 전주 시장 사진특별전>

## 조선의 3대 시장, 전주장 全州場

#### (1) 전시목적

- 전주는 조선시대 3대 시장 중 하나로 꼽힐만큼 물산이 풍부한 곳이었음. 부내시장(府內市場)을 비롯해 4대문밖에 모두 시장이 들어서 총 5곳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 중에서도 남문 밖 시장은 한양의 종로시장을 방불케 하였음.
- 이렇듯 전라감영의 소재지로 물산이 풍부하고 사람이 모여들었던 전주 시장에 대한 학술대회와 더불어 진행되는 전시를 통해 전근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전주의 시장의 모습과 그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 제공.
- 전근대의 옛 시장사진과 현대까지의 모습을 전시함으로써 과거에 대한 회상과 전 세대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2) 전시개요

- 전 시 명 : <개관 11주년 기념 전주시장 사진 특별전>  
조선의 3대 시장, 전주장全州場
- 전시기간 : 6월 11일(화) ~ 7월 28일(일)
- 전시장소 : 기획전시실(3층)
- 전시유물 : 전주성 밖 4곳의 시장, 전주천 다리를 중심으로 한 시장 등 조선말부터 근현대까지의 옛 시장사진 60여점

#### (3) 전시내용

- 전시구성
- 1부. 조선말~일제강점기  
1900~1940년대의 전주의 시장과 상점 사진 20여점
- 2부. 광복이후~현재  
1950~1980년대 전주의 시장과 상점 사진 40여점

구 분	전시주제	전시내용	전시 기법	주요사진
전시 소개	전주시장사진전을 열며 -조선의 3대시장, 전주	조선시대 3대시장의 하나로 꼽 힐만큼 물산이 풍부하고, 규모가 컸던 전주시장에 대한 설명	패널	패널
Section1.	조선말~ 일제강점기	1900~1940년대의 남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주시장과 상점 가 사진 등 20여점	사진 패널	남문 밖 반석리 시장(1900년대) 서문 밖 시장(1912년) 전주시장 전경(1912년) 전주 본정통(1912년) 남부시장(1920년대) 전주 우시장(1930년대)
Section2.	광복이후~ 현재	1950~1980년대 남부시장 근 대화사업 전후사진, 천변노점 상, 서부시장, 동부시장 사진, 상점 등 40여점	사진 패널	전주천 고수부지 옹기가게(1973 년) 남부시장 노점상(1960년대) 남부시장(1960년대) 남부시장 근대화사업(1960년대) 남문 앞 풍경(1968년) 중앙시장(1981년) 동부시장(1982년) 새마을시장(1985년)

#### (4) 기대효과

- '전주의 시장과 경제' 학술대회를 통한 연구와 더불어 전근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전주 시장 사진 수집과 전시를 통해 전주시장의 모습과 그 변천사를 규명
- 조선시대 호남의 수부, 풍요의 도시로서의 전주의 위상 정립과 전주시민들의 자  
공심 고취

## 참고자료 \_ 전시패널 내용

### □ 조선의 3대 시장, 전주장 全州場

전주는 조선제일의 곡창지대 전라도의 으뜸도시로서 물산의 집결지요 유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전주는 평양, 대구와 함께 조선의 3대 시장으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양반도시 전주를 상업도시라고도 합니다.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전주부치(全州府治)는 인구가 조밀하고 재화가 쌓여서 한양과 다를 것이 없이 진실로 큰 도시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18세기에 편찬된 『임원경제지』에는 전주에서 중국과 일본의 상품이 거래된다고 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전주성 4대문밖에 남문밖장, 서문밖장, 동문밖장, 북문밖장 등 4개의 시장이 있었습니다. 전주부 외곽 주변에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봉동장, 삼례장 등 대략 7개 정도의 장시가 열렸습니다.

일제강점기에 4대문의 장시는 풍남문을 중심으로 하는 남문장으로 통합되어 조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전주도심은 대정통(大正通), 즉 전주우체국에서 다가동파출소에 이르는 거리를 중심으로 상가가 형성되어 일본인들의 상업공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는 전주에 약령시가 다시 열려 대구약령시와 쌍벽을 이루었습니다.

### □ 전주부성 4문밖 시장

조선시대 5일장이니, 몇일장이니 하는 정기시장 장시(場市)가 처음 개설된 것은 1470년(성종 원년) 전라도이다. 기록상으로는 나주와 무안 등이 장시가 열렸던 곳으로 확인되는데 전주가 전라감영의 소재지였던 만큼 이 때 전주에도 장시가 개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전주부성의 4문 밖에 각각 시장이 있었다. 남문밖장과 서문밖장이 가장 컸고, 동문밖장과 북문밖장은 규모가 작았다. 『동국문헌비고』에 남문장과 서문장은 대시(大市), 북문장과 동문장은 간시(間市)라고 표현하였다.

장이 서는 날은 남문장 2일, 북문장 4일, 서문장 7일, 동문장 9일이었다. 큰장인 남문장과 서문장이 5일 간격으로 열리고, 그 사이에 북문장과 동문장이 열리는 구조이다. 북문장과 서문장을 그래서 간시(間市)라고 하였던 것 같다. 전주부성은 5일장이 아니라 거의 하루건너 장이 서는 셈이다.

동문장과 북문장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때까지도 존속되었으나 이후 쇠퇴하고 남문장과 서문장 두 곳만 유지되다가 1923년 서문장도 남문장으로 통합되었다. 남문밖장(남밭장)은 전라도에서 제일 컸던 시장이다.

### □ 전주부성내 시전(市廛)

전주성내에는 주석방거리, 쇠전거리, 은방골목, 지전거리, 선자방거리 등 상설점포들이 자리한 시전들이 있었다.

- 주석방거리 : 늦쇠그릇을 파는 점포들이 있던 곳으로 객사 뒤에서 한성호텔로 가는 골목.
- 쇠전거리 : 농기구, 장롱장식, 담배통, 부채장식 등을 파는 점포들로 주석방거리 옆 옛 한일관해장국집

골목.

- 선자방골목 : 부채를 파는 가게로 객사 바로 뒤 동서로 통하는 길목.
- 은방거리 : 금은방거리로 남문을 지나 우측 골목.
- 지방거리 : 종이를 파는 가게들로 은방골목에서 서문 잡화상거리 일원으로 추정.

#### □ 전주천 다리 주변

남문에서 전주부속초등학교로 건너가는 전주교는 1922년 전북 최초로 콘크리트로 시공한 교량이다. 이 다리를 끼고 미곡상들이 늘어서 있어서 싸전다리라고 불렀다.

남문시장에서 완산동으로 건너가는 매곡교는 그 주변에 담뱃대 장수들이 즐비해 연죽교(煙竹橋) 또는 설대전다리라고 하였으며, 그 아래로 우시장이 열려 쇠전다리라고도 하였다.

구도청에서 용머리고개로 나가는 완산교는 소금전이 있어서 소금전다리 혹은 염전교라고 하였다. 완산다리에서 서천교 가는 전주천변에는 다가서포, 서계서포 등의 책방이 있었다.

#### □ 전주 약령시

약령시는 한약재 유통시장이다. 전주 약령시는 조선 효종대 개시되었다가 폐지되었으나 1923년 한약방을 운영하던 박계조 등의 노력으로 복설되었다. 구도청 우편 약령시비가 서있는 곳에서 다가동우체국을 지나 완산교에 이르는 구간에 설치되었으며, 매년 겨울철 2~3개월 동안 개설되었다.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에서까지도 약재상들이 모여들어 1930년대에 전주약령시는 대구약령시를 앞지를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1943년경 폐지되었다.

#### □ 전주 우시장

소를 사고파는 전주 우시장은 매곡교에서 전주교에 이르는 천변에 위치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일대를 쇠전강변이라고 불렀다. 우시장은 1925년에 서정(서학동) 전주교대부속초등학교 위쪽으로 이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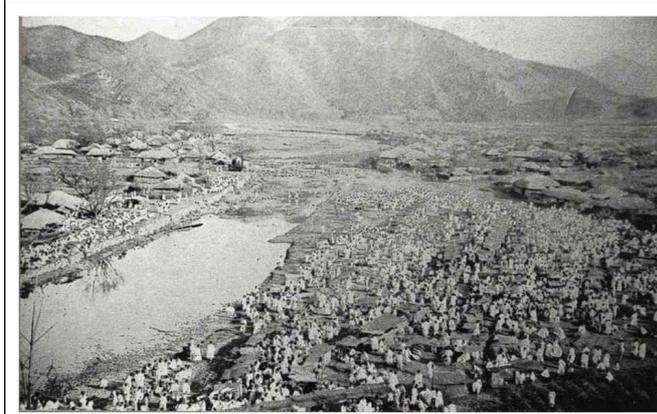
#### □ 남문시장의 변천

남문밖 시장[南門外場]은 전라도에서 가장 큰 시장이다. 조선말의 사진을 보면 남밖장은 싸전다리 부근에서 승암산 쪽, 즉 반석리 일원으로 지금의 전주교대 앞쪽 천변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말의 『완산지』에 보면 남밖장이 서는 날은 2일로, 한달에 세 번(2일, 12일, 22일)에 열리는 셈이다. 조선말까지도 시장은 지금같은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천부지에 좌판을 벌이는 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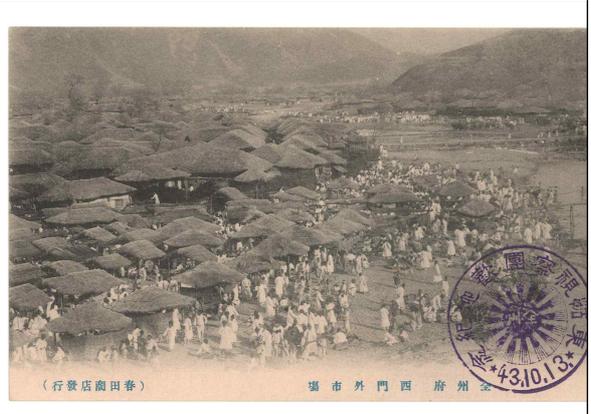
남밖장이 남문을 중심으로 상설시장으로 자리하면서 지금의 남부시장 형태로 발전하는 것은 일제강점기이다. 1914년에 시장규칙이 제정되어 관청의 허가와 시장세가 징수되고, 1923년에 서문장이 남문장으로 병합되었으며, 1935년 전주부 승격후 남문장은 대대적으로 건물이 증축되는 등 크게 확장되었다.

광복후 1968년 남문장의 근대화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그 이듬해 870평 141칸의 상가건물이 1차로 준공되어 현재와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이어 민영화가 추진되어 상가의 매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1978년 민영화가 완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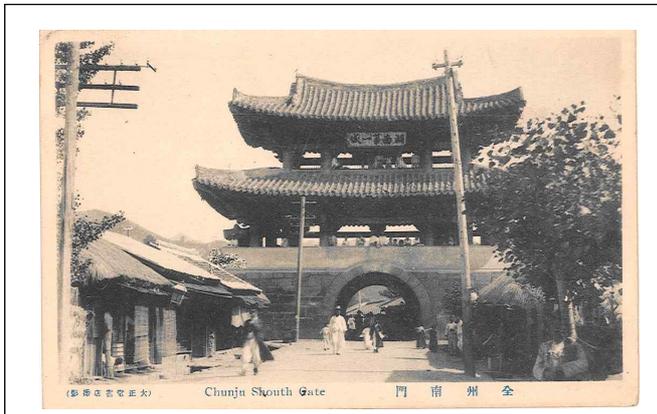
참고자료 \_ 주요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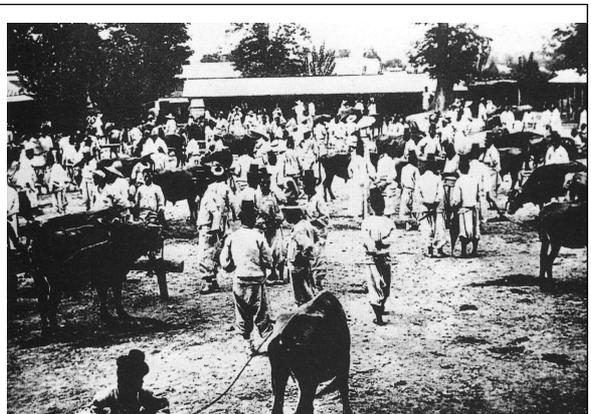
① 남문밖장(1900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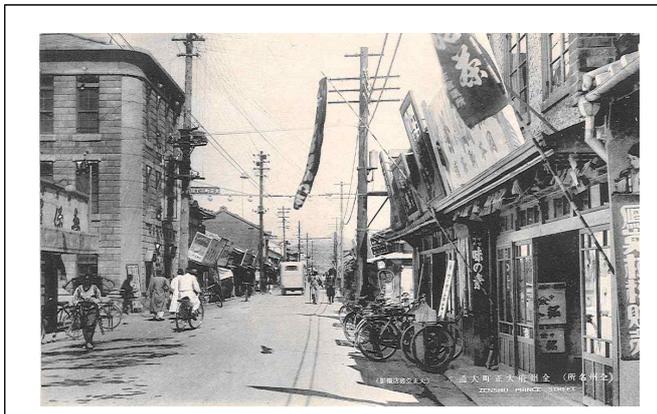
② 서문밖장(1910년경)



③ 풍남문 안쪽 (1910년전후)



④ 전주 우시장 (서학동, 1930년대)



⑤ 전주 대정동(좌측 건물이 박다옥,일제)



⑥ 전주우체국 사거리 (일제강점기)

## IV. <제15회 전주학 학술대회>

# 전주의 시장과 경제

### (1) 사업목적

○ 조선시대 전주는 3대도시로 칭해질 정도로 큰 도시였다. 4대문밖에 모두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남문 밖 시장은 한양의 종로시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큰 시장이었다. 전라감영의 소재지로 물산이 풍부하기가 한양에 버금간다고 하여, 전주를 상업도시라고 하기도 하였다.

○ 따라서 전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주의 시장경제가 규명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없다. 이제 전근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주의 시장과 물산을 규명하여 풍요의 도시 전주의 실상과 그 변천사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전주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고자 한다.

### (2) 사업개요

- 주 제 : <제15회 전주학 학술대회> “전주의 시장과 경제”
- 일 시 : 2013년 6월 11일(화) 오후 1시 30분
- 장 소 : 전주역사박물관 녹두관(지하 1층)
- 주 관 : 전주역사박물관 · 전주학추진위원회 · 전주시

### (3) 사업내용

- 주제발표 1. 조선시대 전주의 시장과 유통망  
- 김대길(국사편찬위원회)
- 주제발표 2. 일제강점기 전주의 시장과 상권  
- 양미경(한국학중앙연구원)
- 주제발표 3. 광복 후 전주의 시장과 상인  
- 구혜경(전북대학교)
- 주제발표 4. 근대 전주의 경제구조와 그 변화  
- 소순열(전북대학교)
- 종합토론 - 좌 장 : 이동희(전주역사박물관)  
- 토 론 : 원용찬(전북대학교), 홍성덕(전주대학교), 함한희(전북대학교), 김민영(군산대학교)

### (4) 기대효과

- 조선시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주지역의 시장과 물산을 규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함께 풍요의 도시 전주의 정체성 확립
- 전주시민들의 역사적 자긍심 고취 및 지역에 대한 애향심 제고

## [전주학 학술대회]

- 1회 “전주지역사 연구현황과 과제”(2005.12)
- 2회 “경기전과 태조어진의 관리 보존방안”(2006. 7)
- 3회 “호남과 영남사림의 학문적 실천의식 비교연구”(2006. 9)
- 4회 “전환기 전주지역의 동향”(2006.12)
- 5회 “호영남 선비들의 예술세계”(2007. 5)
- 6회 “지역학 연구현황과 전주학 연구방향”(2007.10)
- 7회 “전라감영의 원형과 활용”(2008. 6)
- 8회 “금재 최병심의 삶과 학문”(2008.10)
- 9회 “정여립 모반사건과 기축옥사”(2009. 6)
- 10회 “전주정신 대토론회”(2009.10)
- 11회 “조선왕조와 전주”(2010. 6)
- 12회 “근대 전주, 전주인들의 예술세계”(2011. 6)
- 13회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2011.12)
- 14회 “목산 이기경의 삶과 학문”(2012. 6)